



**오, 월드컵!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국장 스님과 총무원 등 1백여 명이 6월 9일 붉은 색 티셔츠를 단채로 입고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북한산을 등반했다. 지관 스님은 "독일 월드컵이 열리는 날 전 총무원들이 산행을 갖게 돼 뜻깊다"며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대표팀 선전을 기원하는 모습. **관련기사 3면** 사진=고영배 기자

## 공원입장료 '폐지' 문화재관람료 '단독징수'

관람료사찰주지회의 결의, 전문기관에 정책 연구 의뢰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찬성-문화재 관람료 단독징수"  
조계종은 6월 7일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월 1차 관람료사찰 주지회의 후 6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6년도 제2차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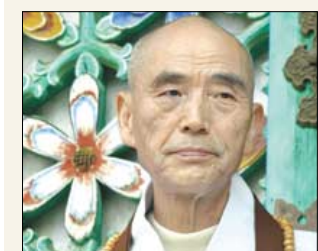
람료사찰 전체 주지회의(위원장 범예)가 관람료 사찰 주지 일동 명의로 발표한 문건은 단독징수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활동이 펼쳐나가겠다"고 밝혀 과거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주지회의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

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국립공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역사와 생태·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람들의 많은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가

재정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의 60% 이상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불교계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문화보존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다소 애매하지만 입장료 단독징수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관람료 사찰은 23곳으로, 이날 회의에는 전체 72개 관람료 징수 사찰 중 40개 사찰 주지스님이 참석했다.

2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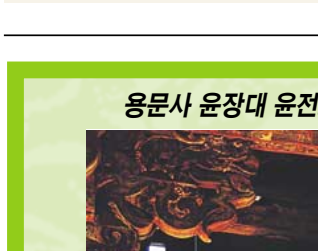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



시방세계 9면  
세계종교지도사대회 개막



도반의 향기 17면  
캠서서 만난 '특별한父子'



울산불교신도회 8면  
일성지순례 23면  
사찰벽화의 세계

## 전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발효'

### 보존구역 경내지 외곽 500m까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이 6월 5일 국무회의 결의로 최종 개정돼 1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번에 개정된 전사법 시행령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범위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통사찰 주지에서 벌어지던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전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6조 2항 신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제7조 2항 신설) 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로 문화재보호법의 사례를 수용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 구역을 명시한 도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역사문화보존구역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종류도 도로와 철도의 건설, 건설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대형 국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수평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전사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통사찰은 모두 919곳, 이 가운데 700여 곳을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다.

본지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8개 종단의 수계 체계와 종도관리 현황을 전파 조사한 결과 대다수 종단이 "종단차원의 수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2개 종단이 "정규적인 행자교육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단차원의 수계제"가 유효하고 승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는 교육도 하지 않은채 계단 받는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본지의 전화 조사에서 종단협 가입 종단 가운데 '군소종단'으로 지정되는 20여 종단은 행자교육원이 없었다. 이들 종단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은 각 사찰에서 은사 스님에게 개별 교육을 받은 후 종단이 2~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연수교육을 통해 계를 받고 스님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모 종단에서는 수계조차 1:1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황룡사 주지 해안 스님도 행자교육을 거치지 않고 태고종 봉원사의 모 스님에게 계를 받았다.

이 같은 편법 수계는 종도관리 시스템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단서다. 특히 군소종단들은 종단의 중앙기구와 지역 기

구 행동은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 놓아 처음에는 사람인줄 알고 집 근처 암자에 나갔는데 매일 그곳을 하고 신도들에게 집을 보라고 요구했다. 나중에 주지가 정식 승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주변에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본지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종단이 '호법 기능(감찰기능)'에도 몹시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단협 소속 28개 종단 중 호법

이 있기 때문에 탐종을 염려해 감찰기능을 포기하는 셈이다.

군소종단들의 정체성 확립과 행자교육 종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은 시급히 필요한 문제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게 종단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종단의 규모에 따라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학자들도 "정체성이 각기 다른 종단들이 연합 구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없다"고 뚜렷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지 조사에서 모든 종단이 수계체계와 종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종단적 논의는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군소종단 소속 스님들의 탁발 무속행위 등 '비행'을 규제할 방안을 종단협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한결 같았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2년 전에도 비행승려를 단속하기 위해 종단협 차원에서 연합감찰제를 만들자고 결의한 적도 있으며, 올 초 정기이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공조하는 종단의 스님들이 많다"며 "종단협이 협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규제나 감시에 어려움은 있지만 각 종단들이 힘을 모아 유기적인 정보 교류를 한다면 각 종단 종도들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8개 종단의 수계 체계와 종도관리 현황을 전파 조사한 결과 대다수 종단이 "종단차원의 수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2개 종단이 "정규적인 행자교육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단차원의 수계제"가 유효하고 승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는 교육도 하지 않은채 계단 받는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본지의 전화 조사에서 종단협 가입 종단 가운데 '군소종단'으로 지정되는 20여 종단은 행자교육원이 없었다. 이들 종단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은 각 사찰에서 은사 스님에게 개별 교육을 받은 후 종단이 2~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 계단·행정 허술, '사이비' 대책 역부족

### 계단·행정 허술, '사이비' 대책 역부족

연수교육을 통해 계를 받고 스님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모 종단에서는 수계조차 1:1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황룡사 주지 해안 스님도 행자교육을 거치지 않고 태고종 봉원사의 모 스님에게 계를 받았다.

이 같은 편법 수계는 종도관리 시스템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단서다. 특히 군소종단들은 종단의 중앙기구와 지역 기

구 행동은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 놓아 처음에는 사람인줄 알고 집 근처 암자에 나갔는데 매일 그곳을 하고 신도들에게 집을 보라고 요구했다. 나중에 주지가 정식 승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주변에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본지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종단이 '호법 기능(감찰기능)'에도 몹시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단협 소속 28개 종단 중 호법

이 있기 때문에 탐종을 염려해 감찰기능을 포기하는 셈이다.

군소종단들의 정체성 확립과 행자교육 종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은 시급히 필요한 문제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게 종단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종단의 규모에 따라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학자들도 "정체성이 각기 다른 종단들이 연합 구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없다"고 뚜렷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지 조사에서 모든 종단이 수계체계와 종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종단적 논의는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군소종단 소속 스님들의 탁발 무속행위 등 '비행'을 규제할 방안을 종단협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한결 같았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2년 전에도 비행승려를 단속하기 위해 종단협 차원에서 연합감찰제를 만들자고 결의한 적도 있으며, 올 초 정기이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공조하는 종단의 스님들이 많다"며 "종단협이 협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규제나 감시에 어려움은 있지만 각 종단들이 힘을 모아 유기적인 정보 교류를 한다면 각 종단 종도들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8개 종단의 수계 체계와 종도관리 현황을 전파 조사한 결과 대다수 종단이 "종단차원의 수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2개 종단이 "정규적인 행자교육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단차원의 수계제"가 유효하고 승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는 교육도 하지 않은채 계단 받는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본지의 전화 조사에서 종단협 가입 종단 가운데 '군소종단'으로 지정되는 20여 종단은 행자교육원이 없었다. 이들 종단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은 각 사찰에서 은사 스님에게 개별 교육을 받은 후 종단이 2~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 20여 군소종단 정규행자교육원 없어 '호법기능'도 포기상태... "여력 안돼"

본지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8개 종단의 수계 체계와 종도관리 현황을 전파 조사한 결과 대다수 종단이 "종단차원의 수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2개 종단이 "정규적인 행자교육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단차원의 수계제"가 유효하고 승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는 교육도 하지 않은채 계단 받는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본지의 전화 조사에서 종단협 가입 종단 가운데 '군소종단'으로 지정되는 20여 종단은 행자교육원이 없었다. 이들 종단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은 각 사찰에서 은사 스님에게 개별 교육을 받은 후 종단이 2~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본지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8개 종단의 수계 체계와 종도관리 현황을 전파 조사한 결과 대다수 종단이 "종단차원의 수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2개 종단이 "정규적인 행자교육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단차원의 수계제"가 유효하고 승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는 교육도 하지 않은채 계단 받는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본지의 전화 조사에서 종단협 가입 종단 가운데 '군소종단'으로 지정되는 20여 종단은 행자교육원이 없었다. 이들 종단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은 각 사찰에서 은사 스님에게 개별 교육을 받은 후 종단이 2~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본지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8개 종단의 수계 체계와 종도관리 현황을 전파 조사한 결과 대다수 종단이 "종단차원의 수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2개 종단이 "정규적인 행자교육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단차원의 수계제"가 유효하고 승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는 교육도 하지 않은채 계단 받는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본지의 전화 조사에서 종단협 가입 종단 가운데 '군소종단'으로 지정되는 20여 종단은 행자교육원이 없었다. 이들 종단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은 각 사찰에서 은사 스님에게 개별 교육을 받은 후 종단이 2~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본지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8개 종단의 수계 체계와 종도관리 현황을 전파 조사한 결과 대다수 종단이 "종단차원의 수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2개 종단이 "정규적인 행자교육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단차원의 수계제"가 유효하고 승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는 교육도 하지 않은채 계단 받는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본지의 전화 조사에서 종단협 가입 종단 가운데 '군소종단'으로 지정되는 20여 종단은 행자교육원이 없었다. 이들 종단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은 각 사찰에서 은사 스님에게 개별 교육을 받은 후 종단이 2~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용문사 윤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동불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감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마 모든소원을 성취하시며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법담 청암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대승사 10분소요    감용사 30분소요    용문사 50분소요    부석사 30분소요    청량사 40분소요    봉정사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서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처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http://www.yongmoonsa.com)